

“피니쉬 라인 아닌 스타트 라인”... 광주은행 새 도약 준비

4분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위기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도약 준비 선제적 리스크 관리 건전성 고도화·우량자산 확대 성장 모멘텀 확보 내부통제 강화에 역량 집중...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혁신 추진

광주은행이 인터넷 중심의 금융권 생태계 변화와 연이은 경기둔화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광주은행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우량자산 확대, 지역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 버팀목 역할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18일 본점 3층 KJ상생마루에서 2023년 4분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경영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4분기 경영전략회의는 여신과 수신, 비이자이익 등 각 부문별 우수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2023년 3분기 경영실적과 4분기 중점 추진전략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날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둔화 가속 및 대출이동제 실시, 인터넷은행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시장 재편이 예상되는 등 어려운 영업환경에 처해있다”며 “내실 성장을 지속해 온 광주은행이 위기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2023년 4분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피니쉬 라인’이 아니라, 2024년을 준비하는 ‘스타트 라인’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한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고물가·저

성장에 따른 한국경제의 스테그플레이션 진입이 예상되는 바, 양호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PB고객 및 우량자산 확대, 핵심에금 증대를 통한 수익성과 성장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은행은 전략회의를 통해 세부 실천 전략으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한 건전성 관리 고도화 ▲우량자산 확대를 위한 성장 모멘텀 확보 ▲내부통제 강화에 전방적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경영혁신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고병일 은행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금융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전 임직원이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광주은행은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변모하는 금융시장에서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도전으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광주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토스뱅크와 공동대출을 추진중이며 카카오페이와 핀다,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 온라인플랫폼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런칭하는 등 전략적인 제휴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자회사인 JBSV(JB Securities Vietnam) 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 FINAVI

’를 공식 출범시켜 베트남 금융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등 광주은행의 안정화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에 본격 나서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역은행으로서 지역경제를 위한 버팀목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지역민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적시에 발빠른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지역경제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 9월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광주은행의 다양한 노력은 단순히 금융지원에 그치지 않고,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지난 2020년 대한적십자사 5억 클럽에 광주·전남 1호 가입에 이어, 작년에는 광주·전남 최초 대한적십자사 10억 기부 클럽에 가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6년 연속 1위 ▲금융감독원 선정 2021년, 2022년 상반기 연속 관계형금융 우수은행 중 소형그룹 1위 ▲금융위원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 평가) 결과 소형은행 중 1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고객접점 부문(고객만족도 평가) 지방은행 2년 연속 1위 등의 괄목할만한 굵직한 경영성과를 보이며 광주·전남 향토은행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8일 광주은행 본점 3층 KJ상생마루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2023년 4분기 경영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고금리 예금 만기 시작...과도한 수신 경쟁 막는다

저축은행 이변주·상호금융권 내달부터 5~6%대 예금 만기 도래 은행채 발행 유연화·LCR 규제 정상화 연기...자금 조달 압박 줄여

금융당국이 2금융권 고금리 예·적금 상품들의 만기 도래가 다가오면서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에 나섰다.

금융권이 자금 유지를 위해 금리 경쟁을 벌일 경우, 금융시장 유동성 불안과 금융회사 건전성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의 5~6%대 고금리 예금 상품들의 만기 도래가 본격 시작됐다.

저축은행권의 고금리 예금들의 만기 도래는 올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상호금융권의 5~6%대 고금리 상품 만기는 다음

달부터 돌아오기 시작해 내년 1월까지 이어진다.

금융권은 작년 4분기에 늘어난 수신 규모를 100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예금이 만기를 한꺼번에 맞는 만큼 재유지를 위한 수신 경쟁이 다시 격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수신 금리는 뚜렷한 상승세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이달 들어 연 4%대 중반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들이 대거 등장했다. 상호금융권에서도 새마을금고가 연 5%대 중반, 신협이 연 5%대 초반 예금 상품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은행권 역시 예금 금리를 연 4%대로 속속 높이고 있다.

금융권의 지나친 수신금리 인상 경쟁은 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데다가 시장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머니 무브’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부터 은행권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채권 발행 통로를 열어줄 테니 수신 경쟁을 통한 지나친 자금 조달에 나서지 말라는 취지다.

이와 함께 유동성 규제 비율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비율 정상화 시점도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LCR 비율을 코로나19 이전인 100%까지 되돌리는 것을 검토해왔지만 정상화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효성중공업, 친환경 미래 전력 시스템 선보여

‘한국전기산업대전’서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등 소개

효성중공업은 20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전력기자재 전시회 ‘2023 한국전기산업대전’에 참가해 친환경 미래 전력 시스템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기존 주력 제품인 초고압 전력기기를 비롯해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태양광 인버터,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STATCOM), 초고압 직류송전시스템인 HVDC, 인공지능(AI)

기반 전력설비 자산관리 시스템 ARMOUR(아모르) 등을 소개한다.

3D용 미디어 파사드 디스플레이를 처음 도입해 미래 친환경 첨단 전력 솔루션과 효성그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영상으로도 선보인다. 효성그룹의 친환경 브랜드 ‘리젠’(RE:GEN)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사업을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기업회생 개시”

광주경총, 서울회생법원 등 적극 지원 호소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호원 회장)는 18일 오전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업회생 개시를 촉구했다.

광주경총은 호소문을 통해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회생법원, 금융권,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대유위니아그룹이 광주시 가진 산업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법원과 금융권, 유관기관에 구제를 호소했다.

광주경총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촉구한다”며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과 자재 대금 여파가 지역산업을 확산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금융권의 신속한 지원을 바

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 계열사도 노사 화합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광주경총은 대유위니아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문제이므로 그룹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62.60 +2.43
↓ 코스닥	808.89 -11.49
↓ 금리(국고채 3년)	4.031 -0.040
↓ 환율(USD)	1349.60 -4.00



포근하게 감싸줘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9층에 마련된 ‘박성룡모피’ 특설 매장에서 모피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오는 2월까지 특설 매장을 운영한다. 밍크코트와 재킷, 베스트 등 의류를 최대 50%, 모자와 머플러 등 잡화 제품을 최대 10%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롯데마트, 주류 할인 ‘주주(宙酒) 총회’ 개최

19일부터 와인 등 600여종 할인

롯데마트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주류 할인 행사 ‘주주(宙酒) 총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행사 기간 전국 롯데마트와 맥스, 롯데슈퍼에서는 인기 와인과 위스키 등 600여종의 주류를 할인 판매한다.

롯데는 연말 휴파티를 준비하는 고객을 겨냥해 봄 행사 때보다 물량을 30% 이상 늘리고 마트와 슈퍼의 공동 소싱을 통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제품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특히 대표적인 가성비 와인인 ‘L와인’은 2명 이상 구매하면 30%, 3명 이상 구매하면 50%를 각각 할인해준다.

3명 이상 구매하면 병당 구매 가격은 4천원에 못 미치는 역대 최저가 수준이다.

맥켈란, 발베니 등 인기 위스키 상품은 오프라인 매장과 롯데온 내 롯데마트몰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주류는 원하는 날짜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갈 수 있다.

주주총회는 롯데마트가 연간 두차례 진행하는 최대 규모의 주류 할인 행사로, 올해 봄 행사 매출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